

책임자 태도·구조 과정... '세월호'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 13명 17일만에 구조... 전세계 축하 문 대통령 "국가 역할 보았다"

태국 네이버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동굴에 갇혀있던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소년과 코치 전원구조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자 태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4년 전 세월호 아픔을 간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조난당한 이들의 책임자가 보인 태도와 구조과정을 비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관련 소식을 언급하고 "세계가 태국의 기적을 지켜봤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보았다"고 적었다.

◇전 세계 환호 속 축하 메시지 쇄도=소셜미디어에는 실종됐던 13명을 찾아내고 구조해준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구조대원들과 돌아온 13명의 소년 및 코치를 소재로 한 그림도 넘쳐났다.

구조현장을 2차례나 방문했던 브라웃짚-오차 태국 총리도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라며 다국적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센트럴그룹 등 유통기업들도 동굴소년들의 전원 생환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속속 전해졌다.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위험천만한 동굴에서 12명의 소년들



태국 차양라이 탐 루앙 동굴에 갇혀 있던 태국 유소년 축구팀 13명(코치 포함)에 대한 구조가 완료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축구팀과 코치가 입원해 있는 차양라이 병원 앞을 찾은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와 달랐던 '태국 동굴' -아이들 먼저 탈출시키고 -마지막에 나온 코치 -구조 현장 취재진 통제 -구조된 소년 신원 안 밝혀 -동굴 안 아이들 부모 배려

과 코치를 무사히 구조한 태국 네이버실에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다. 모두가 자유로워졌다. 아주 잘했다"고 언급했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트위터에 "13명이 모두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며 생환한 소년들과 코치를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동굴에 갇혀있던 옛까폰 코치는 소년 12명이 모두 구조된 뒤 가장 늦게 동굴을 빠져나왔다. 구조작업 중에는 소년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의 대피 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장 등 선원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선장 등은 당시 승객들에게는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안내방송

을 내보내고 자신들은 해경 함정으로 몸을 피했다.

태국 정부의 구조 작업도 재난 현장에서 의도 하나의 교훈으로 꼽히고 있다. 소년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조 현장에 취재진을 철저히 통제했고, 하루 이틀 전 먼저 구조된 소년들의 신원도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동굴 안에 남아있는 소년들의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하는 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는 이번 태국 동굴 소년 구조와 세월호를 비교하며 "태국 소년들을 보며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났다"면서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많았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혁신도시 공공기관 나주산 식자재 기피?

이용률 32.7% 그쳐... 한국전력거래소는 '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농촌경제연구원 '70%'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나주지역 식자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의원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기관 내 구내식당에서 나주시 생산 식자재(농·수·축산물)를 사용한 비율은 평균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체 식자재 중 4.4%, 국립전파연구원은 9.6%만 나주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식자재 이용률은 72.9%에 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0.9%(전남 일부 지역 포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59.4%가량 나주 식자재를 사용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식자재 사용량을 보면 지역 상생에 대한 공공기관별 인식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자재 사용에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13일 방북... 나선지역 방문

송영길(사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오는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한다.

11일 송 위원장 측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방위의 북한 방문을 승인했다. 방북 승인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송 위원장 등은 12일 항공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13일 오전 열차를 이용해 나선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 등은 나선지역에서 러시아 측이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두만강 하구 지역에 있는 나선은 북한이 1991년 경제특구로 지정하며 처음으로 개방한 지역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도 있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등이 재개되면 북한도 이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나선지역에서 열리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서는 3국 협력사업으로 2016년



중단된 복합 물류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송 위원장 일행의 나진항 방문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 일행의 나진항 방문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 일행의 나진항 방문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기적의 생환' 만든 영웅들

실종자 처음 발견한 영국인 잠수사 태국 해군 네이버실 대원 등 다이버 사만 푸난 전 대원 안타까운 사망도

태국 동굴에 최장 17일간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등 13명이 전원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 뒤에는 눈부신 활약을 펼친 영웅들이 있었다.

우선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일 동굴 입구로부터 무려 5km가량 떨어진 경사지에서 소년들과 코치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한 영국인 전문 잠수사들이 있었다.

소방관 출신인 리처드 스탠턴과 영국 브리스틀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는 존 볼랜드였다.

전문가 자격으로 현장에 급파된 이들은

동굴 속 바닥을 기고 급류 속을 헤엄쳐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향후 구조계획의 토대를 세웠다.

특히 2004년 멕시코에서 홍수로 지하에 9일간 갇힌 영국 병사 6명에게 잠수를 가르쳐 9시간 만에 모두 탈출시킨 스탠턴의 경험은 이번 구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감쪽한 동굴 안에서 거센 물살을 헤치며 구조활동에 동참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구조대원과 태국 해군 네이버실 대원 등 다이버 90여 명이 있

었다.

이 가운데 사만 푸난(37) 전 태국 네이버실 대원은 지난 6일 동굴 내부 작업을 하다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겨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해군에서 전역한 뒤 태국공항공사(AOT) 보안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만은 소년들이 동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번 구조작업 과정에서 나온 유일한 희생자다.

지난 2일 소년들이 발견된 직후부터 10일 모두 구조될 때까지 곁을 지키며 건강을 돌본 호주인 의사 리처드 해리스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하는 그는 동굴 잠수 분야에서 30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다. 덕분에 소년들이 있는 곳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입할 수 있었다. 그는 생존자 13명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구조 순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조 당국은 해리스의 조언을 토대로 본격 구조 첫날인 8일과 9일에 각각 4명씩 우선 구조했고 10일에는 나머지 5명을 한꺼번에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소년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다가 고프했던 코치 옛까폰 찬파잉(25)도 숨은 영웅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읍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울산동 농성초전년 리모델링원룸 땅 144㎡ 2중주택 118㎡ 1억9500
- 화순 동면 땅 706㎡ 2중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투자·매도·교환

- 상업지 나대지 전북 신대인 1213㎡ 목욕탕·양한방병원 최적 은행 3억6천 교환가능 5억 3천
- 북구 장동동 주거지역 땅 2925㎡ 은행 3억 매도 7억
- 무안 망운면 목서리 도로접 전 2238㎡와 현경면 해운리 대지 555㎡ 귀농생활적합 은행 9천 인수하고 2500만원
- 울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대 도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춘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동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누기동 대지 152㎡ 3중 상가주택 292㎡ 매도 4억천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땅 792㎡ 팬션 건물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71급 주거지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은 3억8천
- 카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